

인쇄저널

Printing Journal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강형곤 신구대학교 그래픽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기고 저성장시대에 인쇄산업의 길을 묻다

이슈 청년위원회 발족 준비위원회

06

2024 | Vol.439



생기 가득

활력 넘치는

교과서가 되고 싶어서

지학사가 만듭니다.

2022 개정 지학사 교과서
2025.03.03 Coming soon

우리가 만든 캠페인 #2
교과서 사업본부 | 김하늘 대리, 임형진 사원



10



13



14

발행일	2024년 6월 10일
등록일	1990년 3월 23일
발행인	김윤중
편집인	김병수
홍보미디어 위원회	위 원 장 서동숙 부위원장 류윤현 위 원 강해성, 목영만, 채연화
기획제작	사업홍보팀 ☎ 02-333-8631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www.spii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쌍림동 146-1)
디자인 제작	카오스넷은아 ☎ 02-2278-1577

Contents

2024 | Vol.439 **06**

04	기고	저성장시대에 인쇄산업의 길을 묻다
06	이슈	청년위원회 발족 준비위원회
09	용어	알쏭달쏭 인쇄용어상식
10	편집인이 만나다	강형곤 신구대학교 그래픽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3	가이드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남품대금연동제
14	절세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16	안전	인쇄업을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
18	업계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 ● 인협, 김병수 회장, 세계인쇄회의 회장 당선 ● 책자인쇄부회, 선배의 날 행사 개최 ● 서울 협동조합 공동사업 레벨업 모색 좌담회 ● 노란우산 이모티콘 선착순 무료 배포 ● 한신인쇄(주) 증구에 신사옥 준공식 ● 2024년도 한국인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 연합회, 이병권 전무이사 선임 ●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 조합원사 변동
21	정보	일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일학습병행
22	여행	오랜 생명의 기운이 우거진 언덕 문경새재
24	건강	고혈압



저성장시대에 인쇄산업의 길을 묻다

박종세 | 인쇄산업신문 발행·편집인 겸 대표
(경영학박사, 서경대학교 물류유통경영학과 교수)

우리가 사업을 하든 또 업무를 보든 순서와 절차가 있다. 이 순서와 절차가 설계도라고 가정한다면 집을 짓는데도 설계도에 따라 착착 진행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아주 쉽게 풀어나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어렵게 풀어나간다. 이는 곧바로 설계도가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이슈는 성장 DNA를 보유하고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이다. 즉 독감이나 B형 간염 등 각종 질병에 항체를 보유하고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인쇄를 비롯하여 모든 산업의 생태계는 국내외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순환 사이클대로 움직인다. 경영자는 이런 시각판을 항상 분석하고 나의 SWOT(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 전략, VRIO(가치, 희귀성, 모방가능성, 조직성) 전략을 대입해서 성장에 대한 진로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성장의 길을 묻는데는 잠재성장률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잠재성장률 동향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60~1980년대는 평균 10%대이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이때는 두 자릿수 증가가 매년 이뤄지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해 인적자원도 쉽게 공급되어 뭐든지 벌여놓으면 성장을 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성 원리를 놓고 보면 수요는 넘치고 공급이 부족한 시절이라 우선은 배가 고프지만,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성장에 대한 체감을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모두들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이 희망은 곧바로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업종 전문화에 이어 다양화, 신수종산업 개척 등으로 연결됐다. 1990년대는 문민정부가 열리고 1997년에는 IMF 외환위기도 닥쳤다. 이때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인 작년에는 1.4%를 기록했다. 잠재성장률이 1%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라고 한다. 또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경제위기라고 칭하고 있다. 또 2% 이하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하면 저성장 국가라고 말하곤 한다. 참조로 세계평균은 3.5% 정도 된다. 이처럼 중요한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부실하다.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려면 노

동, 자본, 생산성 향상이다. 이 3대 요소 중에 노동과 자본은 현재 우리 경제에 매우 취약점으로 다가왔다. 노동은 인구가 줄고 있고 자본은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가 모두 한계점에 다가와 있다고 할 정도로 부채공화국이다. 기업부채, 가계부채는 모두 100%를 넘어서다. 국가부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노동이 부족하면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부채가 많으면 소비가 줄어들어 주문이 줄어든다. 주문이 줄어들면 기업은 가동률이 줄고 채산성이 악화되어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마지막 하나 남은 생산성 향상은 경영자가 어떻게 설계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성과들이 가능하다. ICT의 발달, 메타버스, 챗 GPT 등 문명의 발달은 잘만 활용하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구조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하면 디지털 전환(DX)도 쉽게 이뤄지면서 스마트 인쇄산업 환경을 열어갈 수 있다. 이런 환경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저성장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길이 보일 것이다.

인쇄산업의 길을 찾다

잠재성장률이 2% 이하 시대에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뛰어야 한다. 모두가 불황으로 움츠려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Image by Freepik

늘어서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우리가 인쇄물을 생산하더라도 주문만 쳐다보기보다 계획생산이 매우 좋다. 연중 고른 가동률을 위해 비수기를 메우는 차원에서라도 수출을 일정 부분 가져가면 한결 부드럽고 여유로워진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한국경제의 전체 GDP에서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7.5%나 된다. 다음으로 고품질, 저가격(여기서는 가격경쟁력이다.), 철저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인쇄물 품질이 높고 높은 가격을 받아야 채산성 향상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 그러나 경쟁산업사회에 내가 경쟁우위에 서려면 가격경쟁력도 갖춰야 하고 납기준수, 친절도, 생산 메뉴얼, 디지털 전환속도 등 서비스도 잘 갖춰서 고객과의 친밀성과 공고한 유대강화가 되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 더 필요한 시대다

그런데 저성장시대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가능성을 갖춰야 한다. 인쇄물도 단순히 제품만 생산한다고 생각하면 가치적인 면에서 밀릴 수가 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기능을 갖추면 경쟁력은 올라가고 자연히 차별성은 부각된다. 이와 함께 불황이 깊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고객들은 인쇄

물 주문을 줄이려고 한다. 당연한 결과이고 이미 예상한 일들이라 놀랄 일도 아니다. 여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있느냐와 없느냐에 몰리게 되는데 경제는 심리이고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쇄물에도 감동을 줘야 한다. 인쇄물에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죽음의 계곡 즉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정해진다. 저성장시대에는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수밖에 없다. 경영도 아이디어, 사람, 시장, 제도에 폭을 넓히면서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R&D)하는 자세와 연결해서 개발(C&D)을 하고 인수해서 개발(M&D)하여 성장 영토를 탄탄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성장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성장판도를 바꿀 수가 있다. 30년 저성장을 겪고 있는 일본도 다 어려운 게 아니다. 도요타 자동차와 소부장 기업들은 꾸준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 생산영토를 국내만 국한하지 않고 해외 생산과 영업 등으로 다양화시킨 결과이다. 우리도 생산영토를 확장하면서 성장엔진을 가동시켜야 하겠다.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어 간다고 했다. 인쇄인의 지혜를 총결집시켜 새로운 성장판을 깔고 성장 가속도로를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어려울수록 이에 비례하여 기업가 정신이 더 필요한 시대다.

청년위원회 발족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인쇄산업의 미래 이끌어갈 청년 CEO 및 2세 경영인 육성·역량 강화

서울인쇄조합은 오는 6월 21일(금) 강원도 속초에서 열리는 2024년도 인쇄산업 경영자 세미나에서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갖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7일(월) 오후 3시 조합 회의실에서 청년위원회 발족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준비위원회에서는 청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밖에도 인쇄산업의 새로운 미래와 경쟁력 강화, 가격 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개진되었다.



임경환 (주)에스케이씨엔피 실장



최서영 승화프린팅(주) 대표이사



박선영 (주)태영플러스 대표이사

인쇄업계 중추적 역할 당부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회의는 청년 CEO 및 2세 경영인에게 인쇄산업혁신과 서울인쇄조합의 발전을 위한 고전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 청년위원회의 발족을 통해 인쇄업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경환 (주)에스케이씨엔피 실장은 “인쇄업계에 들어온 지 15년 정도 되었지만, 다양성도 많고 변화도 많아 지금도 배우면서 일하고 있다”며 “그동안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인쇄요금 기준표가 빨리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들은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원하기 때문에 가격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인쇄조합의 구성원들만이라도 인쇄기준표에 따른 단가로 견적을 내고,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렇게 해야 젊은 세

대가 인쇄업을 지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쇄업계 고정관념을 깨야 발전할 수 있어

최서영 승화프린팅(주) 대표이사는 인쇄업계에 만연한 고정관념을 깨야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종잇값과 원재료 비용은 뺀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로스(Loss)율을 줄이는 것에 목표를 삼아야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팩토리나 R&D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회사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쇄업 특성상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 폭넓게 발전해야 하며 서비스업으로의 전환과 소프트웨어와 IT의 접목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주)태영플러스 대표이사 역시 “인쇄업을 서비스업이라고 했을 때 인쇄의 범위를 넓힌다면 조합의 회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인쇄업이 단순히 출력된 결과물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



청년위원회 발족 준비위원회 회의 후 기념촬영



도건영 해머아트 과장



안석현 일간인쇄계 대표



이용기 (주)도야 대표이사



고성진 (주)진프로세스 실장

하도록 확대해야 하며 조합도 인쇄기 보유업체뿐만 아니라 잉크, 제지 등 공급업체, 제본 등 후가공업체까지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도건영 해머아트 과장은 “인쇄업에 입문한 지 6~7년 밖에 안 돼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인쇄조합의 청년위원회를 통해 인쇄업계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인쇄업계의 열정과 포부를 밝혔다.

업계 현황 파악과 정보공유 중요해

안석현 일간인쇄계 대표는 청년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해외 사례 비교를 제안했다. 그는 “포괄적인 목표도 좋지만, 사안을 좁혀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인쇄 요금, 인력 부족, 환경 개선 등 현안에 관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게 청년위원회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인쇄업체들을 방문해보는 것”을 권유했

다. 또한, 회의 진행 시 현황 파악과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적용 중인 기준요금의 적용 상황과 어려움, 최근 인쇄 저널에 나온 민관협의회 결과 및 전략 방향에 대한 정보를 청년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주)도야의 이용기 대표이사는 인쇄 단가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내 인쇄업 보호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인쇄 단가의 빠른 정착 방법과 재정비 촉진지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구 필동의 인쇄업체들이 공장 등록증과 폐수 배출 시설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새로운 사업장은 허가를 받는 모순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 또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인쇄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윤중 이사장님이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인쇄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나타났다.



서동열 유림씨앤피 대표



김찬희 삼우기획 대표



이홍일 (주)영림인쇄 대표이사



조지혁 (주)대원문화사 상무

한정된 시야를 넓힐 필요성 절감

(주)진프로세스의 고성진 실장은 인쇄업계의 기계 노후화와 디지털 전환의 어려움에 대해 토론했다. 고 실장은 “충무로 18년 차인데, CTP 출력만으로는 힘들어서 기획·제작도 병행하고 있다”며 “기계가 노후되어 새로 구매할지, 이전할지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며 디지털인쇄기계 구입을 알아봤지만, “기계 비용 외에도 클릭 차지 비용이 늘어나 운영이 힘들 것 같아 계획을 백지화시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합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서동열 (주)유림씨앤피 대표는 회사의 운영 방식으로 제값을 받는만큼 품질과 납품 요청 시간을 최대한 맞추는 것을 강조했다. 서 대표는 “업체마다 약간씩 다른 방침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격을 먼저 정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도 인쇄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며 고객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저희는 주로 현장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한정된 시야에서 경영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면 인쇄 업무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쇄 기준단가의 중요성 인식

김찬희 삼우기획 대표는 “16년간 삼우아트 대표이신 아버지 밑에서 인쇄업을 경험했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지금도 매일 출근하여 견적부터 포장, 납품까지 다방면으로 일을 하다”며 “매일 열 건이 넘는 견적 작성 중 비고 견적 요청이 상당히 많다”는 우려를 털어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기준 단가의 중요성을 점점 더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

이홍일 (주)영림인쇄 대표이사는 양장 인쇄에 특화된 파주출

판단지 소재의 영림인쇄에서의 경험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표는 회사가 오프셋인쇄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후가공 및 제본에 이르는 모든 라인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양장 분야에 대해 특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대표는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혁 (주)대원문화사 상무는 인쇄업계에서는 견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예정가격 설정이 실제 경쟁에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상무는 수많은 견적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제 경쟁에서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인쇄업체들의 현실이며, 또한, 이러한 경쟁은 종종 싸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협력이나 단합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토론했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청년위원회 기대

청년위원회는 서울인쇄조합이 인쇄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CEO 및 2세 경영인을 육성·역량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참여 확대 및 현안에 대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핵심 사업계획 중 하나이다.

앞으로 수시로 만나 △인쇄인생존권 수호활동 지원 △인쇄기준요금 정착활동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진행 △서울인쇄센터 운영 활성화 등 업계 현안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2024년도 인쇄산업 경영자 세미나 행사 시 정식으로 발대식을 갖고 인쇄산업의 미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알쏭달쏭 인쇄용어상식
도무송기, 톰슨기 뭐가 맞을까요?



〈출처: 대화UCP〉

인쇄산업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로 도무송, 톰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인쇄용어 중 하나인데요, 과연 정식명칭이 무엇인지 인쇄산업인들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무송은 다양한 재료를 특정한 모양으로 자르는데 사용되는 기계장치입니다. 도무송은 주로 인쇄, 포장, 공예, 의류, 자동차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도무송이라는 이름은 일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초창기 제조업체인 톰슨(Thompson)의 발음이 일본에서 변형(톰슨 → 도무손 → 도무송)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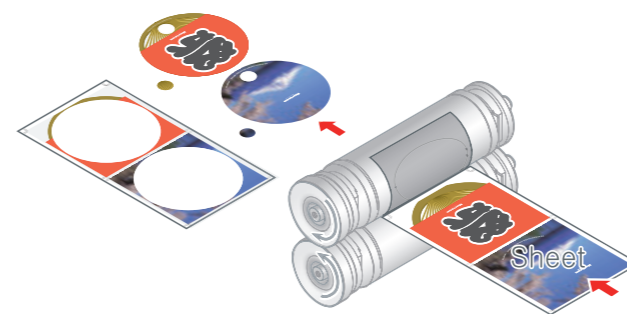
한 가지 더! 혹시 학생들 사이에서 인스와 도무송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인쇄산업들은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를 잘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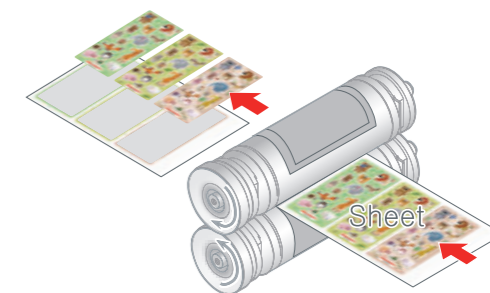
르더군요. 인스는 ‘인쇄소 스티커’의 줄임말로 재단이 되지 않은 스티커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접 가위로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고 도무송은 이미 반칼이나 완칼 재단이 되어 있어 페어내 붙이기만 하면 되는 스티커를 말한다고 하네요.

도무송기는 영어로는 ‘Die Cutter’라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따냄기, 타발기로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현장용어	도무송, 톰슨기
순화용어	따냄기, 타발기
영어명	Die Cutter / Cutting Machine
뜻	두꺼운 종이 등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따내는 기계



완칼 재단(Die Cutting): 완전히 절단하는 방식



반칼 재단(Kiss Cutting): 부분적으로 절단하는 방식

〈출처: Horizon〉



신구대학교 그래픽커뮤니케이션학과

인쇄교육 정체성 확립 통해 새로운 부흥기 준비

1990년대 말만 해도 인쇄를 가르치는 학교나 기관이 열두 군데가 넘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인쇄를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는 이제 신구대학교 그래픽커뮤니케이션학과와 서울공업고등학교 그래픽아트학과 두 곳뿐이다. 그동안 추풍낙엽처럼 문을 닫는 인쇄학과를 바라보며 인쇄단체가, 업계가, 정부가, 교육계 당사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누구 하나 나서지는 이 없었고, 서로의 이해관계로 당연히 제대로 된 교류나 대응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저 인쇄현장이 열악한 탓, 요즘 젊은이들의 인성 탓, 탓 탓 탓만 늘어놓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변화할 것 같지 않던 교육계에 최근 조용하지만 꽤나 묵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 있다. 부경대 인쇄학과를 졸업하고 성도와 한국하이텔베르그에서 기술영업이사를 거쳐 지난 2020년에 신구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강형곤 교수가 바로 그다. 그는 임용되자마자 22년 넘게 인쇄산업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고스란히 인쇄교육에 녹여냈다. 이에 학생들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최신 인쇄기술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4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결실을 맺어 인쇄산업계에서 신구대 졸업생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해방이래 우리 인쇄업계가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국제기능올림픽 인쇄직종 참가자격을 작년에 일궈낸 최초의 인물이다.

또한, 일학습병행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업계가, 학계가, 기관이 서로 융화되지 못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지난해 팩컴코리아와 함께 실현한 장본인이다.

이밖에도 드루파 전시회 참가자격이 주어지는 세계자선 패키징생산성 대회에 두 달간 무료로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지원받아 전 세계 21개국 인쇄과 중 당당히 예선 1위까지 차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귀요미(?)로 함께 허물없이 어울리며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로드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 친근한 인쇄를 알리는 등 저변확대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맑은 웃음으로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은 그를 지난 5월 30일 서울인쇄센터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인터뷰는 인쇄저널 편집인인 김병수 서울인쇄조합 상무이사 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인 및 학과 간단히 소개 바랍니다.

부경대 인쇄정보공학과를 졸업하고 22년간 인쇄사, 출판사, 장비공급업체에 있다가 지난 2020년 교수로 임용받아 디지털 인쇄 실무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픽커뮤니케이션학과는 간단히 융복합학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이라는 단어가 예술분야만 생각할 수 있지만, 공학도가 가져야 할 자세, 그다음에 예술인이 가져야 할 자세, 이 두 개가 융합되고 복합되어 있는 학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학과 명칭을 개편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10여 개가 넘는 많은 학교에서 인쇄학과 명칭을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고3 학생들이 저희 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픽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디자인만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에 올 6월 프린트미디어학과로 명칭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영어로 프린트미디어(Print Media)지, 한글로 하면 그냥 인쇄학과입니다.

저희 학과 특성을 미디어 중에서도 프린트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젊은 친구들이 안 들어오는 부분은 기성 세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인쇄산업인들이 젊은 인력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 인력단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인쇄산업이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쇄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구조는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문체부쪽으로 인쇄문화협회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쪽에는 연합회와 조합들이 있고, 산업부쪽으로는 그래픽 기술협회와 인쇄학회가 있고, 대한인쇄연구소와 인쇄진흥재



강형곤(신구대학교 정보미디어학부 그래픽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단도 있습니다. 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사실 집에서 집사람하고 애들도 제 말을 안 듣는데...(웃음)

저 역시 제가 있는 위치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다보니 조금씩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린트미디어라는 학과명 변경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알고 들어와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 계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학교는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옛말이고 지금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대 특성상 학생 중간 탈락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1학년 35명 중 4명만 그만졌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신입생 모집할 때 인쇄업계 자녀 6명이 입학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 전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고 또 그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 노력하다 보니 결실을 맺고 저한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대대적으로 변화를 줘야겠다 싶어 학과명 개편을 계획한 것입니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지금 보면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외국계 기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친분을 쌓았던 해외 여러 기업과 관련 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진행해 나가다 보니 학생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학생 3명은 자발적으로 자기 돈으로 드루파 전시회에 참관하러 갔습니다. 학생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가고 싶은 그 열정 하나 가지고 간다고 하니 독일 현지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누굴 만나야 하는지 이것저것을 알려줬습니다.

인술자 없이 가서 고생은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국제기능올림픽에 인쇄종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50년 개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쇄중주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2024년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자격을 획득했는데 최소 14개국 이상 참가해야 한다는 요건에 11개국만



세계패키징대회에 출전해 예선전 1위를 차지한 학생들과 단체사진

신청을 해 인쇄종목은 열리지 않아 2026년 중국 상하이 올림픽에는 꼭 참가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마다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회 예선전을 치루고, 이어 1, 2등을 모아 전국대회를 거쳐 4명을 선출하고, 다시 평가전을 통해 최종 1등을 뽑아 1년간 합숙훈련을 시키는데 저희는 두 달만에 준비해 출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패키징대회 역시 인쇄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회사인 시넵스로부터 두 달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라이선스를 지원받아 출전, 21개국 중 예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넵스는 PC상에서 인쇄기를 운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지막 결승전에 진출하면 두 팀이 독일 드루파 전시회에 초청되어 라이브 결승전을 치루는데 저희는 예선전 이후 8강에서 5등을 차지해 이쉽게도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합심해 순위에 올랐다는 것에 가슴 뜨겁게 뿌듯함을 느끼고 학생들이 역시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조합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울인쇄조합도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 일을 진행할 때 목표로 잡았던 부분에 있어서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실망감 또한 그만큼 크겠으나 소신을 갖고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업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젊은 예비인쇄인들을 좀 귀하게 여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3 학생이 본인의 전공을 선택할 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적순으로 이뤄지는 게 당연시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쇄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성적 때문에 선택했겠지만, 이 전공을 잘 선택했다고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보여주면 아이들이 바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뀐 아이들이 열정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또래의 젊은 친구들도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는 사실 학생들보다는 어른들이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형곤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반세기가 넘는 국제기능올림픽에,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단 한번도 참가하려는 노력을 안했다는 점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보게 했다. 그리고 그의 작은 열정의 씨앗이 우리 인쇄산업계 젊은 세대에 널리 전파되어 큰 숲을 이루리라는 큰 희망을 보았다.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납품대금연동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납품대금연동제란?

납품대금연동제는 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이나 기타 비용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그에 맞춰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받는 돈도 함께 오르거나 내리는 방식입니다.

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양쪽이 공정하게 비용 변동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용대상으로 위탁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기(90일), 소액(1억원),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용지 가격 상승분만큼 더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에 인쇄물을 납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인쇄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지의 가격이 올라가면, A 회사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인쇄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받는 납품대금을 용지의 가격 상승분만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용지의 가격이 내려가면 B 회사는 A 회사에 줄 돈을 줄 일 수 있습니다.

원재료 확인 등 연동 약정체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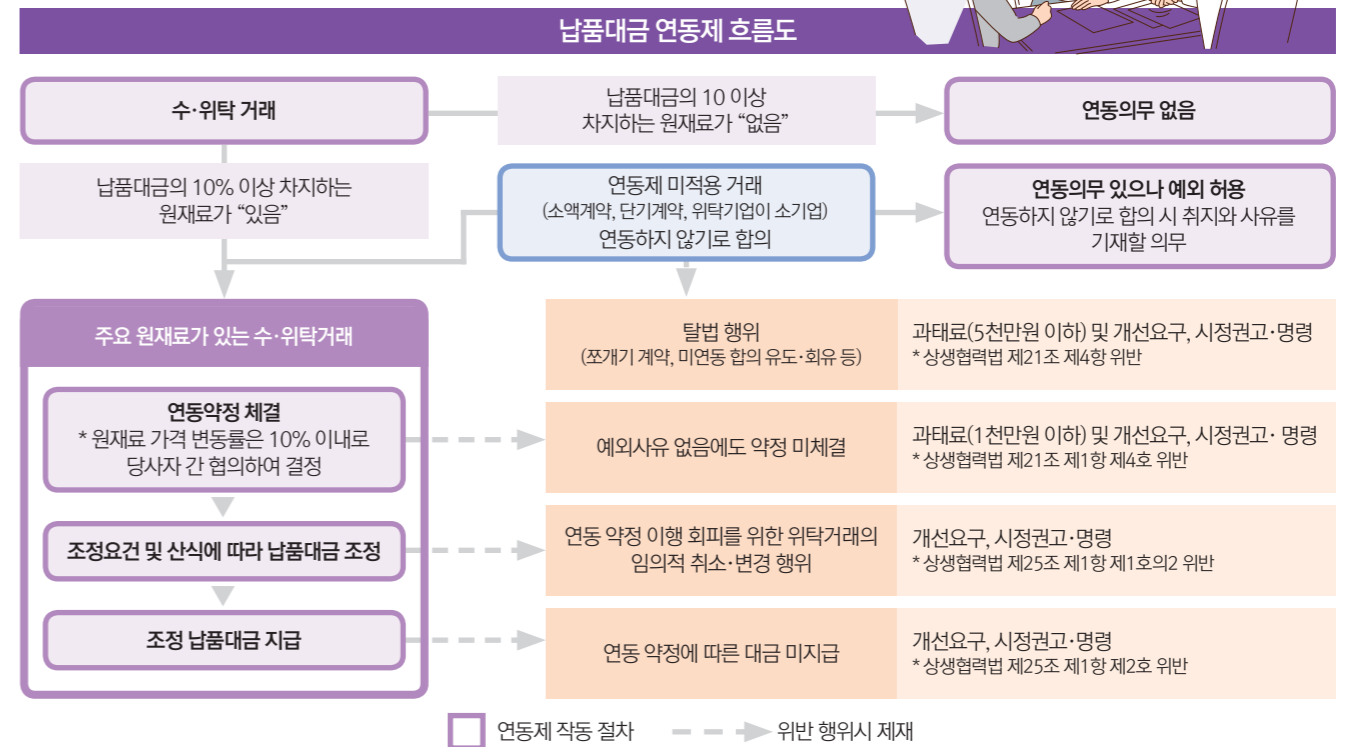
또한, 약정서에 연동 내용을 기재하고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확인 및 납품대금 조정분 산출·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어려워하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해 보세요.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전화: 02-2024-3206~7)
누리집: 납품대금연동제.kr(smes.go.kr/pis)


위탁기업 소기업이면 예외

이 제도의 목적은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 납품업체가 일방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 신규사업자 관련 ①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 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율도 높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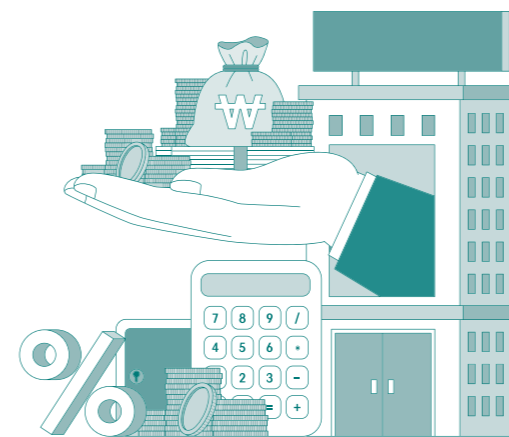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 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한다.

●●●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 세법상 차이

• 세율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세율은 9%에서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 기업이 유리하고 2,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제외)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출처: 국세청·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인쇄업

▶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이행되어 있지 않을 때 처벌받습니다.(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1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우리 업종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를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인쇄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망사고) 사례는 무엇인가요?

▶ 인쇄업종에서 최근 5년('18~'22년)간 전체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 끼임 2, 깔림 1, 떨어짐 1, 절단·베임 1

끼임

'17.12. 인쇄기 이물질 제거 중 옷이 말려 들어가 기계에 끼여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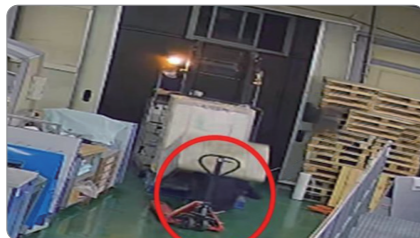


사고를 예방하려면?

- 정비·보수 등 작업 시 운전정지 후 조작부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LOTO)
- 기계 방호덮개 및 울 설치
- 비상정지장치, 연동장치(인터락) 설치
- 작업 시 방호장치 해체 금지

깔림

'20.9. 파렛트용 수동 대차로 이동 중 적재물(960kg)이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사고를 예방하려면?

-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지탱
- 중량물 무게에 적절한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 통제·관리하는 작업지휘자 배치
- 작업방법, 위험요인 등 근로자 주지

떨어짐

'20.12. 지게차 포크에 근로자 탑승하여 적재작업 중 1.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사고를 예방하려면?

- 추락위험 작업 시 이동식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 지게차 등 기계는 주 용도로만 사용
- 승차석 위치에만 근로자 탑승
- 추락위험 작업 시 안전모 착용

※ 해당 사례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례 위주로 작성(경미한 부상 사례는 제외)

이것만은 기본!

- 1 작업장 정리정돈은 반드시 실시하세요.
- 2 업무시작 전에는 꼭 안전사고 위험작업과 **준수(주의)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세요.
- 3 위험한 곳에는 꼭 **안전표지판, 안전스티커**를 설치·부착하세요.
- 4 직원 중에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체크하세요.
- 5 기계 청소·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 차단 등 **운전 정지** 및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하세요.



업종별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

※ 동 내용은 중소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22년 배포한 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QR코드 참고)를 간소화하여 작성한 자료이며, 상세한 법적의무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사업주 핵심 의무사항(인쇄업)

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

-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사항 총 15가지 중 **핵심 의무사항을 안내**하니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 ▶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아래 핵심 의무사항을 최소 반기 1회는 체크해보세요!!**

핵심 의무사항 하나!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립니다.**

- ▶ 예시 ← 아래는 예시임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립 가능
- (방침) "우리 작업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목표) "끼임, 지게차 사고 등 00건 감소", "미배출 인쇄용지, 이물질 등은 반드시 운전 정지 후 확인·제거하기" 등 (공유·전파)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수시로 사업주의 의지를 알리고, 근무 공간이나 휴게실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우리 사업장은?	
예	아니오

핵심 의무사항 둘!

▶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지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20~50인 미만 사업장 중 제조업, 임업, 하수, 환경, 폐기업 5개 업종에 한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권고사항)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겸직 가능, 사업주(대표)가 수행 가능)
- ▶ 예시 (20인 미만 제조업 등 법적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 전체 공정(작업) 관리 직원을 안전보건 관련 업무 수행 직원으로 지정

우리 사업장은?	
예	아니오

핵심 의무사항 셋!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비용)을 사용합니다.**

- 여력이 있는 범위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안전 예산(비용)을 편성하여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
- 사전에 지출할 계획이 없더라도 안전용품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면 됩니다.
- ▶ 예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안전화, 안전모 등) 지급, 인쇄기 후면 방호덮개나 덮개 연동장치(인터락) 등 설치·보강, 지게차 등 운반기계 정비·점검, 잉크 등 MSDS 경고표지, 안전표지판(출입금지, 끼임·말림 위험장소 경고 등) 설치,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소음 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등

우리 사업장은?	
예	아니오

핵심 의무사항 넷!

▶ **우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위험성평가)을 합니다.**

- 부상 등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아차사고) 보고 등 근로자·안전제안제도를 운영(건의함, 게시판 등 설치)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선하는 등 사업장 실정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 방법, 서식 등은 위험성평가 시스템(오픈즈 QR 참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예시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에 근로자 의견을 듣고, 개선 및 주의사항을 근무 시작 전 조회시간,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근무 공간, 휴게실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안내

우리 사업장은?	
예	아니오

▶ 유해·위험요인 예시

- 인쇄기 가동 중 미배출 용지, 이물질 제거 등으로 끼임 위험
- 지게차를 이용한 제품 운반 시 주변 근로자 부딪힘 위험, 운전 미숙(면허 미보유)으로 지게차 넘어짐, 적재물 무너짐 등에 따른 운전자 끼임·깔림 위험
- 높은 장소에 제품 적재 등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지게차에 탑승할 경우 떨어짐 위험
- 화물차량에 제품 적재 시 떨어짐 위험
- 절단기·칼 등에 의한 베임·절단 위험

핵심 의무사항 다섯!

▶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을 만들고, 산업재해가 있었던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

- ▶ 예시 화재 등 비상대응 매뉴얼(비상대피도, 비상연락망, 이송 병원 등) 마련, 이전에 발생한 사고별 재발방지대책 마련

우리 사업장은?	
예	아니오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 2024년도 1/4분기 사업현황 및 재무제표 보고



서울인쇄조합의 2024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9일(목) 오전 11시 PJ호텔 4층 카라디움홀에서 재적 50명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조합의 2024년도 1/4분기 사업현황 및 재무제표 보고가 있었으며 원안접수되었다. 한편, 김윤중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는 6월 21일 개최할 인쇄산업 경영자 세미나와 함께 할 청년위원회 발대식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참가를 독려했다.

인협 김병순 회장 세계인쇄회의 회장 당선, 한국에서 다시한번 회의를 개최할 터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병순 회장이 드루파 전시기간인 지난 5월 29일 독일 뒤셀도르프 메세타워 11층에서 열린 세계인쇄회의의 이사회에서 경선을 통해 우리나라 단체장으로는 최초로 임기 3년의 회장에 당선되었다. 세계인쇄회의는 50개국에 가입된 국제 인쇄단체로 1989년에 창립되었으며,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지난 2003

년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016년 일산 킨텍스에서 30개국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김병순 회장은 “앞으로 세계 인쇄인들의 구심체 역할과 미래 인쇄발전을 모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임기 중 한국에서 다시한번 세계인쇄회의의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책자인쇄부회 선배의 날 행사 개최, 선후배 인쇄인 노고 감사



서울인쇄조합 책자인쇄부회 선배의 날 행사가 지난 5월 8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있었다. 전준호 간사장은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선배님의 은혜의 고마움을 전하는 날”이라고 했으며 한용근 금영문화사 고문은 답사에서 “건강, 가족의 행복, 사업번창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자산승계 절세전략 강의와 만찬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서울 협동조합 공동사업 레벨업 모색 좌담회, 협동조합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돼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5월 16일(목) 서울인쇄센터 1층 회의실에서 ‘서울 협동조합 공동사업 레벨업 모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인쇄업·기계업·상점가·장신구업·자동차정비업 등 각 협동조합 성과를 돌아보고, 중소기업 ‘혁신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발전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선 협동조합 제품 공공구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신인쇄(주) 중구에 신사옥 준공식, 현대적 감각과 최신식 자동시스템 구축



한신인쇄(주)(회장 이상억)의 신사옥 준공식이 지난 5월 24일(금) 오후 4시 30분 서울시 중구 퇴계로 46길11에서 열렸다.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이날 준공식에서 이상억 회장은 “당사의 신사옥은 현대적 감각과 최신식 자동시스템을 갖춰 더욱 효과적인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신인쇄는 1983년 설립, 지난해는 GMI인증 획득으로 세계적인 품질을 입증한 바 있다.

2024년도 한국인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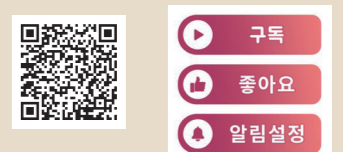
한국인쇄학회(학회장 오성상)의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회가 지난 5월 16일(목) 오후 1시 스테이락호텔 2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발표회에는 신동윤 부경대 교수가 오는 9월 부경대에서 개최하는 인쇄기술발전컨퍼런스(APT 2024) 홍보 및 잉크젯 응용에 대한 소개를, 이승훈 가천대학교 교수가 플랫폼의 생각법, 이승환 에이스기계 실장이 자동접착기의 최적화 활용, 김연상 동국대학교 대학원생이 PDF/X-4의 최적화, 이원성 팩컴APP 부장이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발표했다.



연합회, 이병권 신임 전무이사 선임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래수, 이하 인쇄연합회)는 지난 6월 3일자로 신임 전무이사에 이병권씨를 선임했다. 이병권 전무이사는 1986년 농림부에 입사, 조달청을 거쳐 2023년까지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을 역임했다.

서울인쇄조합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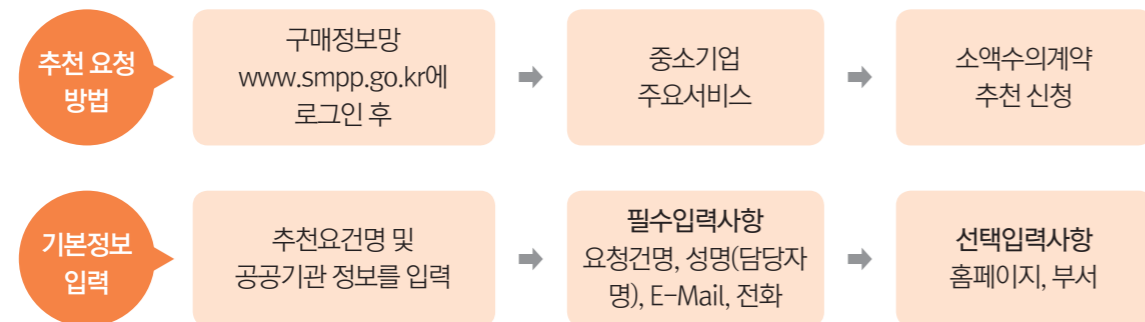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는 공공기관이 소액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조합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중소기업들이 공공계약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진행과정

1. 공공기관이 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상업체 추천을 요청합니다.
2. 추천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구매정보망에서 소액수의계약 추천건을 정보검색하여 추천신청합니다.
3. 협동조합에서 추천을 신청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선착순으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공공기관에 추천합니다.
4. 공공기관은 추천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수의공고, 견적접수 등 절차를 거쳐 낙찰자 선정 및 계약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 1533-0092
제도 관련 문의 : 02-2124-3241~2

조합원사 변동

업체명	변동 전	변동 후	변동사항
나우종합인쇄	중구 을지로18길 19, 506	중구 동호로31길 24-4, 2층	주소
문중인쇄(주)	02-507-2409	0505-115-7153	팩스번호

결혼

- 형제아트(주) 윤병업 대표이사의 장남 호준군이 6월 2일 엘리에 나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주)동부피앤비 정승기 대표이사 아들 현규군이 6월 8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2층 그랜드볼룸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고

- 삼정인쇄공사3 정순례 대표 모친께서 지난 5월 11일 별세했습니다.

일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이란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국가직무표준(NCS) 기반으로 업무 현장 및 사업장 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

참여자격

- 상시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가 20인 이상인 기업

구분	내용
학습근로자 자격	1년 이내 입사자
학습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20%까지

참여혜택

- 훈련비용(현장훈련 OJT 훈련비), 기업전담인력(HRD담당자 및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
- 조달청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가점(5점) 부여
- 조달청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시 가점(1점) 부여
- 훈련 이수 후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자격 취득 가능
- 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기업지원금

- 훈련비용

구분	지원 내용	비고
현장훈련 (OJT훈련비)	216만원 + a	훈련 수준·시간·인원에 따라 추가 지원
훈련장려금	240만원 + a	• 훈련인원에 따라 추가 지원 • 학습근로자 외부평가(최종) 합격 시 1인당 최대 360만원 추가 지원 단, 훈련 초월·종월 일할계산

- 기업전담인력 수당

구분	지원 내용							
HRD 담당자	월 25만원 정액지급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만원)								
기업현장 교사	학습근로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월별지급액	33.3	41.6	50	58.3	66.7	75	83.3
	학습근로자수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월별지급액	91.6	100	108.3	116.6	125	133.3	

참여신청 방법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재직자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참여신청서 제출
- 진행절차

STEP. 1	기업 모집 및 지정	STEP. 5	훈련실시
STEP. 2	약정체결	STEP. 6	내·외부 평가
STEP. 3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STEP. 7	자격 및 학위취득
STEP. 4	훈련과정개발·인정	STEP. 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참여가능 직종(산업형)

구분	지원 내용
정보통신	SW개발_L3, SW개발_L5
보건·의료	의료코디네이터_L3, 의료기관행정관리_L4
식품가공	제고_L2, 제빵_L2
음식서비스	식음료서비스_L3, 바리스타_L3
섬유·의복	패션제품유통_L2, 패션머천다이징_L4
인쇄·목재 가구·공예	편집디자인_L3, 출판에디터_L5 출판콘텐츠연출가_L5, 평판인쇄_L2 특수인쇄_L3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시각디자인_L3, 실내디자인_L3 애니메이션 제작_L3, 방송 제작_L5
건설	건축설계_L3, 건설관리_L5 건축설계_L5, 건축구조설계_L5

- 문의 : 02-2186-5810

일학습병행을 더 알고싶다면?

YouTube 바로가기





여행 

오랜 생명의 기운이 우거진 언덕 문경새재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들다’고 했던 고갯길을 지키고 있는 것들은 옛 선비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다. 사람의 발걸음을 편안하게 맞아주는 황톳길과 그 길의 곁에서 컷가를 적시는 물길이 함께 살고 있다. 깊은 숲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생명들의 아롱아롱한 숨소리가 가슴속에 차분히 스며든다.

EDITOR+PHOTO 김관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조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경새재는 한양의 한강과 영남의 낙동강 유역을 이어주던 영남대로에서 가장 높고 험한 고개였다. 영남과 한양을 오갈 수 있는 길은 조령, 죽령 그리고 추풍령까지 세 갈래 길이 있었는데,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선비들은 아무리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길이 험하기로 소문난 문경새재를 통했다. 추풍령을 넘으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죽령을 넘으면 미끄러진다고 하는 금기 때문에 과거급제를 위해 문경새재를 넘었던 것. 문경의 옛 이름인 문희(文熙)의 의미가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라고 하니 이 길을 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을 것이다. 이렇듯 많은 선비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문경새재는 1981년부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문경조령관문, 문경새재 옛길, 주흘산 조령관문 등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옛길박물관과 드라마

오픈 세트장, 생태 공원 등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테마를 갖춘 관광지로 발전했고, 자연의 신비가 살아 숨 쉬는 현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기운을 충만하게 안겨준다. 탐방로는 편도 6.5km의 거리에 조성되어 있으며, 제1관문에서 제2관문까지 약 3km, 다시 제2관문에서 제3관문까지 약 3.5km에 이르는 길로 완만한 경사의 언덕길로 정돈되어 있다.

맨발로 느끼는 황톳길

문경새재 입구와 제1관문인 주흘관(主屹關) 사이에서 길을 떠나기 전, 특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시간 없고 마음 급해 그대로 통과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지만, 옛길박물관에 들러 두 발로 만나게 될 고갯길의 이야기들을 먼저 듣고 간다면 더욱 풍성한 경험을 맛볼 수 있다.

백두대간의 산세가 주흘관의 성벽을 포근히 감싼다. 그 모습이 장엄해보이기도 하고 엄마 품처럼 따뜻해 보이기도 하여 성문을 통과하면 나타나게 될 풍성한 자연이 벌써부터 반갑고 감사하다. 주흘관 안으로 들어서면 곧 특별한 공간 앞에서 잠시 고민에 빠진다. 도란도란 앉아 발을 담그고 앉은 이들이 정겨워 보이는 ‘발 씻는 곳’, 이곳에서부터 황톳길이 길의 종점인 제3관문인 조령관까지 이어진다. ‘과연 길의 끝까지 맨발로 걸어도 괜찮을 만큼 길이 좋을까’라는 의심은 어쩌면 당연하다. 대답은 ‘Yes’. 본래의 모습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옛 과거길로 스스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6.5km의 긴 여정은 맨발로도 충분히 괜찮은 황톳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시시각각 바뀌는 물의 소리

황톳길 못지않게 고마운 건, 역시 길의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물소리다. 우거진 숲길 속을 채워주는 물소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들리는 길이 또 있을까 싶으면서, 그 소리가 함께해주시는 길이 고되거나 지루하지 않다. 낙동강의 3대 발원지 중 하나로 알려지기도 한 문경조점의 물줄기는 산길을 따라 묵묵히 내려와 곳곳에서 계곡을 이루고 때로는 작은 못을 만들기도 하며 또 좁은 수로를 따라 흐르면서 끊임없이 길동무가 되어준다. ‘포르르’ 흐르는 물줄기 소리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으면 마치 당연하기라도 한 듯 평화로운 못이 말없이 잠깐의 휴식을 부른다. 정자 위에서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주위에서 들려오는 생명이 꿈틀대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 어느새 물소리가 ‘랄랄랄’ 높아지는 것 같으면 가던 길도 포기한 채 발 담그고 놀고 싶은 바위 계곡들이 군데군데 앉아 있다.

옛 사람의 흔적들

문경새재에는 많은 이들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선비들뿐만 아니라 물건을 팔러 다니며 한양과 영남의 문물교류를 책임졌던 상인들과 일본을 왕래하던 조선 통신사 일행도 이 길을 넘었다. 사람들의 왕래는 험한 산 속까지도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게 했고, 그렇게 생겨난 것들이 긴 세월을 지나 지금까지 남아 있기도 하다. 문경새재를 대표하는 세 개의 관문인 주흘관, 조곡관, 조령관은 그중에서도 가장 아픈 사연을 지니고 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뒤 빠르게 북상하던 왜군은 한양으로 진격하며 이곳 조령에서 부대가 합류했다. 그 정도로 군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지만 신립 장군은 이곳에서 적을 물리쳐줄 것이라는 조정의 기대와는 달리 충주로 후퇴하여 길을 내어주고 만다. 이후 충주에서 일어난 의병장 신충원이 지금의 제2관문 자리에 성을 쌓고 교통을 차단하며 왜병을 기습하였으며, 군사적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은 조정은 3층의 관문을 설치하게 된다. 각 관문의 사이사이에는 나그네들의 숙소와 주막, 유적지, 그리고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노래와 이야기들이 남아 있다. 숙소로 사용됐던 조령원터, 이·취임하는 경상도관찰사가 관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하는 교귀정, 국내 유일의 순수 한글 비석인 산불도심비 등은 그것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궁금하게 한다. 문경에도 아리랑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이들도 많다. 같은 문경아리랑이고 가사도 같지만 부르는 이에 따라 소리의 억양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호기심을 부른다. 악보 등이 없이 오래도록 구전되어 왔기 때문에 문경아리랑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남게 됐다고 한다. 길속에 세상의 이치가 있는 듯하다.



건강IN의 건강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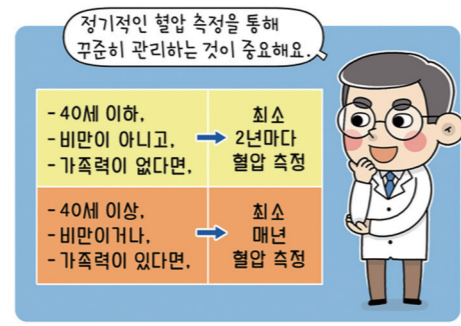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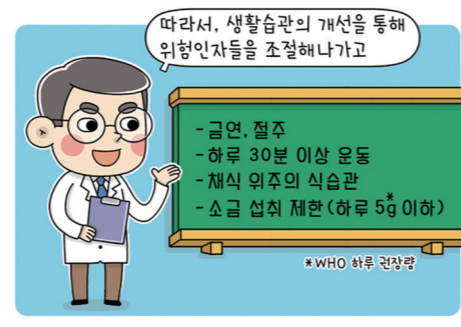
고혈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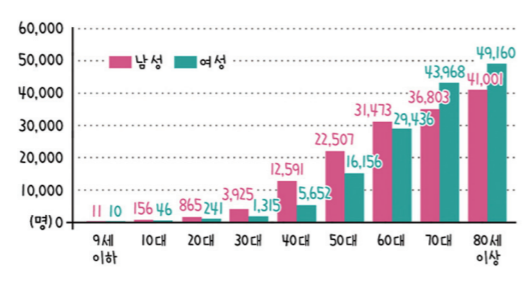
따라서 고혈압뿐 아니라, 고혈압으로 진행되기 쉬운 고혈압 전단계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압 분류	수축기 혈압 (mmHg)	이완기 혈압 (mmHg)
정상 혈압*	< 120	그리고 < 80
주의 혈압	120~129	그리고 < 80
고혈압 전단계	130~139 또는	80~89
고혈압	1기	140~159 또는 90~99
	2기	≥ 160 또는 ≥ 100
수축기 단독 고혈압	≥ 140	그리고 < 90

*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 혈압



<2022년,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고혈압' 진료인원>



(출처-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동상표 HI-PRINTING

HI-PRINTING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 제한경쟁 입찰이나 지명경쟁 입찰 참가 가능해 일반 입찰보다 낙찰 가능성 UP!
- 물품품 분류번호별 10회, 각 20억 원까지 가능 (소액 수의 계약 : 물품 분류번호별 2회, 낙찰 시 1회, 1억 원 한도)
- 안정적인 수익창출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1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HI-PRINTING 사용 신청서 1부 (www.spii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서울인쇄조합에 제출
 - 이메일 : spic8631@naver.com
 - 팩스 : 02-3344-8731
 - ※ 기존 '직심' 가입자는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공동상표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중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하나로 중소기업제품의 품질을 협동조합에서 보증하여 현재 지명경쟁·제한경쟁입찰 형태로 많은 수요기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33-8631(내선 241 사업홍보팀 이재민 과장)

Kprint 2024



2024
8.21 수
~ 24 토

KINTEX
제2전시장 7,8홀

Since 1978

KIPES

27th Korea International Printing Machinery and Equipment Show
제27회 국제인쇄기자재전시회

Klabel

Korea Label Show
한국레이블전시회

Kpack

Korea Packaging Show
한국패키징전시회

Kdigital print

Korea Digital Print & Solution Show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

Ktextile

Korea Textile Show
한국텍스타일전시회

Ksign&ad

Korea Sign & AD Show
한국사인·광고전시회

주최

한국이앤엑스
대한인쇄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 한국인쇄진흥재단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 대한인쇄연구소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 한국인쇄학회

미디어후원



www.kprint.kr



참가신청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kprint@kprint.kr



가족친화 우수기업

MAIN Biz

경영혁신명 중소기업

km3
ISO 9001

km3
ISO 14001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P

조달청

FSC

인증번호: FSC® C0COC1000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창작디자인연구소

2019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

컬러 본딩

살아있는 색을 구현하다



보유인쇄기종

- RYBI OFFSET 1020ST-5
- MITSUBISHI DAIMOND 3000Ls5color
- KOMORI LITHRONE LS426



KYUNGSUNG 경성문화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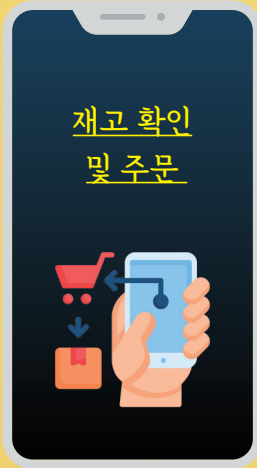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1 여의도동 퍼스텍빌딩(B1F, 1F, 4F, 5F, 7F, 8F, 9F) T.02-786-2999

충무로 공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8, 1층(충무로3가, 용봉빌딩) T.02-2274-5944

일산 장항동 공장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28-66 T.031-908-97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세종(편집·디자인실) 세종 특별자치시 어진동 3-113





잘못된 주문 오류
내가 주문한 제품이 아닌데?



언제, 어디서나, 주문 및 취소가능
모바일, PC 접속하여 24시간 주문 가능

늦은 재고 확인
재고조회 요청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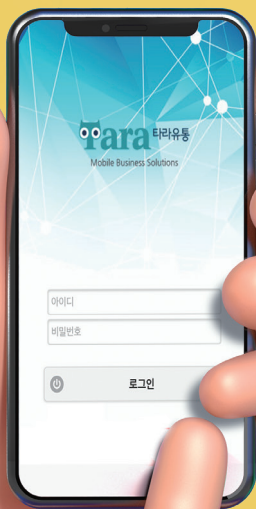


제지사 재고 실시간 확인
타라유통 재고 + 무림페이퍼, 한솔제지 재고
실시간확인 / 추후 흥원제지 연동 예정

깜깜이 배송
종이가 출발은 했나? 도착은 언제??



실시간 배송확인
배송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
(자사 전자량 GPS 부착)



모바일 주문 시스템
차별화 선언
내 손안에 종이세상
T-verse

※T-verse는 타라유통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바일 주문 플랫폼 입니다.

